

■ My Pacific Islands Trip

## 뉴우-지일란드·필립핀·대만을 둘러보고

李 鳳 順  
(梨花女子大學校 圖書館長)

뉴우-지일란드의 오크랜드市는 南緯 37度 線上에 있어서 우리와는 正 反對 方向에 位置하고 있다. 8月인데도 아직 겨울이라지만 푸른 草原에는 羊배가 풀을 뜯고 있는 한가로운 風景이 겨울을 實感할 수가 없었다. 호주는 두차례 다녀 왔으나 이번이 初行인 뉴우-지일란드는 그곳 겨울을 어떻게 占쳐야 할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런데 가고 보니 想像 이외로 겨울 보다는 우리나라 봄을 연상하게 하였다. 紫木蓮이 만발하고 黃水仙이 피었는가 하면 장미꽃도 곁들여 피고 있어서 季節感이 온통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날씨는 쌀쌀해서 코트를 입고 다니는 형편이고 室內는 난방이 되어 있었다. 오크랜드 大學에서 旅裝을 풀고 國際女學士協會 太平洋地域會議에 참석한 것은 8月 20日부터 25日까지였다. 그리고 나머지 2日 間은 뉴우-지일란드를 둘러보는 순서로 되어 있었다. 매마침 80周年을 맞이하는 호주와 뉴우-지일란드 女學士協會는 共同으로 아담한 기념 잔치 마저 베풀어서 이번 會議는 여러 면에서 意義가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 主題 마저 「地域社會 相互間의 理解 增進」이란 問題를 놓고 서로 다른 歷史와 傳統 言語 및 文化圈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理解하고 對話의 길을 모색하는데 이번 會議의 目的을 두고 있었다. 모든 國際會議가 그러하듯이 主題 강연도 重要하고 討論도 重要하지만 그 보다 더 값진 것은 서로 만나서 서로를 알고 친하고 사귀는데 있는것 같다. 南太平洋의 어느 섬 例를 들면 Fiji 같은 섬은 지금까지 地圖上에서 깨알 만한 點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곳 代表를 만나고 난 後에는 내 머리 속에 그 나라가 크게 확대되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그 만남이란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는 것은 이번 會議에서 새삼스럽게 느꼈다. 太平洋 地域에서 13個國 代表가 왔고 國際女學士協會 理事陣도 참석하여 구라파의 몇 나라도 참석한 적이 되었다. 호주와 뉴우-지일란드는 各各 各을 代表를 파견하여 員 100여명이 참석하고 방청하는 사람들은 別실에서 T.V.로 中繼되어 觀할 수 있었다.

본래 계획은 會議가 끝나는 대로 웰링톤에 가서 그 나라 首都의 圖書館 및 圖書館 教育 事情을 둘러볼 계획이었다. 不幸히 週末이 끼어서 웰링톤에는 가지 못하고 오크랜드의 公共 圖書館과 大學圖書館을 찾아 보는 정도로 마음을 달랠 수 밖에 없었다. 會議 참석차 어느 곳에 가서 圖書館을 둘러 보는 것은 항상 수박 겉 핥기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자신의 전문 분야를 소홀히 하는것 같은 責任感마저 느껴져서 짧은 시간대로 圖書館을 둘러 보고 責任者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가야 직성이 풀리는것 같았다.

오크랜드 大學圖書館은 1969년에 新築되어 아직 새 집 냄새를 그대로 풍기는 깨끗하고 차분한 圖書館이었다. 다른 나라의 새로 지은 大學圖書館에서 흔히 보는 그런 호화로운 面은 없고 어디까지나 實利를 생각하고 운영하는 圖書館으로 보였다. 圖書館 設計 및 建築을 위하여 20年間 연구하고 계획을 했다는 것만 보아도 그 조심성을 짐작하고 남음이 있을 것 같다. 장서는 30만권 정도 밖에 안되지만 앞으로 50만권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館長 Durey씨는 설명하였다. 學生 座席도 500席 정도지만 앞으로 1,100席 정도로 더 늘일 계획이라 했다. 世界 어디를 가나 공통점은 모든 圖書館들이 새로 지었거나 옛 建物이거나 다 Space 문제로 골 머리를 앓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이 圖書館에서 가장 눈에 띄이고 인상적인 것은 New Zealand and Pacific Collection이었다. 하여간 뉴우-지일란드나 南太平洋에 흩어져 있는 여러 文化圈에 관한 資料를 各方面으로 수집하고 別치해서 大學 및 밖에서 오는 분에게도 要求에 따라 열람시키고 있었다. 近來에 와서 大學圖書館들이 地方色을 나타내는 資料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비단 뉴우-지일란드 뿐만은 아니었다.

오크랜드 公共圖書館을 방문할 때는 이번 會議에 참석한 代表 中에 사모아인 한명, 호주인 한명 그리고 筆者까지 圖書館인이 3인이 끼어 있어서 다 같이 구경을 잘 기회가 있었다. 이 圖書館은 오크랜드市 100周

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1971年 11월에 開館하였으므로 1년도 못된 그야말로 칠 년새도 가지지 않은 圖書館이었다. 地上 4層 地下 2層(주로 書庫)으로 되었고 총건평이 약 2,850坪으로 되어 있다. 1層이 社會科學 2層이 人文科學 및 어린이 圖書室 3層이 古書 및 古文書 그리고 4層에 行政部署 이런 式으로 되어 있었다. 이 圖書館 특징은 수서에서 부터 分類 目錄 그리고 製本室까지 높은 4層에 올라다 두었다는 점이었다. 一般讀者들에게 아래층은 다 양보하고 圖書館人들은 윗층에서 일 하고 있는 인상이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카레이터 그밖에 모든 것이 機械化 되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不便은 없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地下層까지 다 書庫 아니면 열람실로 마련하고 事務는 제일 윗층으로 다 올려 간 것이 특이한 인상을 주었다.

마닐라에 到着한 것은 밤 10時경이었다. 비행장에는 막사이사이 財團 총무로 있는 친구가 마중 나오기로 되었는데 보이지 않았다. 밤은 늦고 하는수 없이 이번 會議에 참석했던 필립핀 代表의 고모님이 되는 카스트로 박사의 신세를 지는 도리밖에 없었다. 알고보니 그 친구는 막사이사이 재단의 노동자들이 데모를 해서 事務室에 갈려 집에도 못가고 있는지 5주일이나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므로 이런 환경에서 그 친구 만나고 오느라 고심해야 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겁도 없이 外國人이란 핑계로 데모대의 포위망을 뚫고 다른 事務室에 붙일이 있는척 하고 들어가서 비밀계단으로 案內되어 劇적으로 그 친구를 만나고 오기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아슬아슬하게 넘긴것같다. 우리 나라를 지나간 그 배풍이 마닐라를 먼저 치고 왔기 때문에 마닐라는 아직도 흉탕물이 그냥 고여 있는 곳이 태반이었고 홍수에 밀린 배를 벗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사방에서 데모를 하고 新聞에는 매일같이 불발 폭탄이 發見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무시 무시하고 살벌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마닐라 港의 夕陽만은 여전히 아름답다.

먼저 케존市에 있는 필립핀 大學圖書館을 찾았다. 가는 길은 도중에 포장이 폭풍우에 밀려 나가서 먼지와 싸우면서 그 部分을 통과하느라 긴 時間을 소비해야 했다. 일단 大學 구내에 들어서니 다듬은 잔디에 꽃이 만발하고 만 世界였다. 관장 Dayrid 女史를 만나 그宅에서 점심을 같이하면서 大學圖書館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필립핀 大學圖書館은 록키펠러나 포드財團의 원조를 많이 받아서 시설도 장서도 지금까지는 마음껏 했는데 인제는 그 줄이 끊겨서 한심하다는 그의 이야기였다. 점심후 圖書館大學에 들러 學長을 만나고 두루 구경하였다. 이곳은 學部와 大學院도 겸하는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獨立된 圖書館大

學으로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오후에는 學生 代議員 선거가 있을 예정이 있었는데 끝난 뒤에 과격파들의 후유증이 있어서 圖書館에 피해가 올라 염려스러워 문을 닫아야 하겠다는 館長의 수심스런 모습을 뒤에 두고 나는 총총이 캠퍼스를 떠나야 했다. 이 平和로운 분위기 속에도 不安은 도사리고 있구나 싶어서 슬펐다.

U.P.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카톨릭계의 아메네오大學圖書館을 잠깐 둘러보았다. 그곳 館長은 出他中이어서 만나보지 못하고 소규모의 알뜰하고 아담한 이 圖書館은 필립핀의 민족투사이며 영웅으로 숭배를 받고 있는 Rizal의 이름을 따서 Rizal 圖書館이라 부르고 있었다.

다음에 찾은 곳은 마닐라市立大學이었다. 지대가 낮은 탓인지 온통 흉탕물이 주위에 있어서 건널목을 타고 넘어서 겨우 캠퍼스에 들어섰다. 學生이 많고 비좁은 인상을 주었다. 圖書館이 獨立建物이 아니고 어느 建物의 一部를 圖書館으로 改造하여 두층만 쓰고 있는데 냉방시설도 하고 깨끗하게 꾸며져서 그 大學의 다른 部分과는 지나치게 대조적이었다. 그 圖書館館長은 처음뵈는 분인데 보통키에 活動的이고 정력가라는 인상을 처음부터 풍기는 女性이었다. 圖書館에 첫발을 들여놓을 때부터 세심한 女性의 손질이 어느 구석이나 엿보이는 圖書館이었다. 아직 모든면에서 앞으로 많은 發展을 약속하는 과정에 있는 圖書館이었다. 이 圖書館도 필립핀 및 마닐라 資料室을 별치하고 그 方面에 熱을 올리고 있었다. 그분은 館長室에서 茶를 나누면서 우리 圖書館 實情도 물어보고 자기네 고충도 거리낌없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떻게 豫算을 얻어서 이렇게 훌륭하게 圖書館을 꾸렸는지 그 비결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는 「大學 豫算으로야 어렵겠지요 市委員들을 찾아 다니고 市에서 예산을 타냈지요」 하면서 고충도 많았다고 그는 솔직했다. 자기는 일심전력을 다해서 大學圖書館다운 圖書館을 만드는데 낮이고 밤이고 없이 몰두했다고 한다. 그래서 筆者는 그의 장한 투지를 흠모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칭찬을 했더니 그는 돌연 엄숙한 表情을 지으면서 그 댓가로 내년 73年度부터는 자기를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한다고 했다. 나는 깜짝놀라서 웬일이냐고 물었더니 大學教授들의 反感을 사서 그렇다고 하면서 그는 맥없이 먼 하늘을 쳐다보고 앉았다가 「그것이 나의 일에 대한 댓가의 전부요」 하고 쓸쓸하게 웃었다. 나는 다른 위로의 말을 찾지 못하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야 했다.

필립핀 國立圖書館은 전에도 訪問한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관장이신 Quason박사를 만날 目的으로 들렀더니 싱가포르에 가고 안계셔서 필립핀 圖書館協會장이신 Ferrer씨가 대신 맞아 주었다. 마침 72年度 圖書展

示會가 열리고 있어서 이를 둘러본 후 Ferrer씨의 사무실에서 필립핀의 특유한 야자열매로 만든 우리 나라 증편같은 떡을 들면서 이야기의 꽃을 피웠다. 명랑하고 사교성이 많은 그분은 도서교환문제에서부터 圖書館協會 이야기까지 서로 協力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旅行을 떠나면서 한가지 느끼는 것은 같은 길을 가는 圖書館人 끼리는 나라와 言語를 초월해서 서로 공통점을 發見하고 쉽게 친해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臺北市에서는 王女史의 안내로 그 나라에서 경영한다는 教授會館에 여장을 풀었다. 겸소하지만 갖출 것은 다 갖춘 값싸고 편리한 이곳은 地方에서 올라오는 教育者들 및 그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한 곳이라 했다. 外國손님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筆者도 大學 선생이라서 받아 준 모양이었다. 일반 호텔 같지 않고 분위기가 좋았고 특방에 욕실, 세면실이 다 있고 냉방 장치도 되어 있는데 1일 \$3 정도였다. 특방이 아닌 가족실이나 친구들과 같이 드는 房은 굉장히 싸다는 이야기였다. 學校 선생들의 奉급으로서는 일반 호텔에 들 수 없는 형편이므로 국가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그들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었다. 한편 부러움생각도 나고 염가로 편하게 있으니 나도 흐뭇한 생각이 들었다. 다만 사람들은 世界的인 孤兒가 되어 간다고 슬퍼하거나 애를 배우는 내색도 없고 여전히 배연한 모습이었다. 어느 때 둘러도 새삼

스러운 것은 그나라 음식맛 그리고 産 物價였다. 변한 것을 느낀다면 筆者가 만나려던 도서관인들의 不在였다. 國立圖書館長 李 博士는 미국 일리노이州에 있는 로자리대학에 가서 도서관학 교수로 在職中이고 대만대학 도서관학과 課長이신 라이教授는 하바드원정 도서관에 가게시다는 소식이었다. 두 자리가 다 공석으로 있는 형편이었다. 겨우 대만교육대학의 王館長만은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圖書館을 둘러보고 특히 그 대학의 특정한 外國人을 위한 「國語中心」이란 中國語學院을 둘러 보고 美國人 學生들도 만나 보았다. 外國人들의 中國語 배우는 熱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臺北市에서 조금 떨어진 교외에 자리 잡고 있는 國立古宮博物院은 1965년에 新築 開院하였다. 3個月에 한번씩 전시품을 바꾸게 되어 있어서 언제 가도 새로 보는 博物館 같았다. 화창한 날씨에는 노랑색 건물이 더욱 돋보이고 마치 傳說에 나오는 옛 宮殿을 訪問하는 感을 주는 곳이다. 항상 시간에 쫓기다 보면 일부만 들고 그대로 돌아서야 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면서도 발길이 오래 머무는 곳은 자기와 玉, 비취, 상아로 된 제품을 전시하는 곳이었다. 언제나 잔잔한 미소와 따뜻한 대접으로 대해주는 蔣 院長은 본래 국립도서관장을 지낸 圖書館人이었다. 年老하신 분인데도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일에 열중하고 계신 데는 자연 머리가 숙여졌다. 박물관을 나서는 순간에 비로소 들렸던 피로를 한꺼번에 느끼게 되었다.

(19면에서 계속)

- c. 學校圖書館의 發展을 위한 聯邦政府의 支援을 받게 하였으며 學校圖書館標準을 마련하였다.
- d. 여러 가지의 세미나와 大會 및 會議를 開催
- e. 叢誌 및 綜合目錄의 편찬에 있어서 AACOBS와 協同을 하였다.

오스트라리아 圖書館協會는 이미 16회의 每 2年마다 여러 都市를 순회하면서 大會를 開催하고 있으며 定期的으로 Austratian Library Journal을 出版하고 있다. 또한 協會의 主要事業中의 하나는 每年 300名 程度 合格이 되는 司書資格試驗을 實施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엔 College Library Resources Centre와 School Library Resources Centre의 設立을 위한 審議會를 만들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상에서 館種別로 濠州의 圖書館界를 概括적으로 언급하였는데 濠州의 圖書館人이 지적한 當面한 問題로서

- 1. 當局의 圖書館에 대한 理解가 不足하다. 그러므로 改善의 速度가 느리다는 것이다.

- 2. 全體人口의 30%가 圖書館을 利用하고 있다.
- 3. 公共圖書館이 學生들의 利用으로 一般人의 利用에 장애를 준다.
- 4. 學校圖書館과 公共圖書館의 聯合圖書館으로서의 Community Library가 필요하다.
- 5. 司書들이 地方에서 勤務하기를 싫어한다.
- 6. 州政府와 自治團體의 圖書館에 대한 分擔責任問題
- 7. 地方圖書館들이 聯邦政府의 財政支援을 받기 힘들다. 圖書館을 擔當하는 官吏가 圖書館教育을 받지 않았다.
- 8. 國家的인 圖書館시스템이 確立되지 않았다. 各州가 圖書館奉仕의 標準化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聯邦政府를 說得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스트라리아의 圖書館은 社會教育의 一翼을 擔當하고 國家發展에 기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圖書館人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滿足스럽게 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